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청원위파 3,768명 수단 신청 “다른 종파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청원위파 相英회장 “전국 순회...설득한 결과”



청원위파 相英 회장

중앙종친회(회장 甲洙)가 현재 진행중인「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은 8월 23일 청원위파(淸原尉派·회장 相英)에서 3,768명의 수단신청을 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다른 종파문중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뒤를 이어 수단신청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위파 相英회장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 회의에 수단작성을 주도한 청원위파 奎昇이사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청원위파 일가 6,000여명 중 우선 수단작성

을 마친 3,768명의 수단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甲洙회장과 편찬팀 임원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총성공파 鮮敎회장은 相英회장의 결단을 크게 환영했다.

甲洙회장, “편찬사업에 획기적 계기” 편찬팀, “수단신청 선도” 크게 환영

甲洙회장은 相英회장의 수단신청결단에 대해 “청원위파 문중에서 근 4,000명에 이르는 많은 일가들의 수단을 신청한 것은 이번 편찬사업의 진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충실하게 완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종파문중과 소문중에서 적

극참여해 주기 바라며 또한 수단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相英회장은 수단을 신청할 뜻을 밝히면서 “3,768명의 일가들이 수단신청을 결정하기까지 지난 2~3년간 청원위파 일가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각지를 수십번 순회하면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는 고행을 해야 했으며, 수단작성을 책임지고 수행한 奎昇이사의 노고가 컸다”고 밝히고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단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판서공파 4형제인 점촌공파, 청원위파, 순천공파, 무주공파 합동회의를 열어 수단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면>

9월 13일 이전에 수단을 신청하면 9월 30일 추석 때 족보 검색 가능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은, 8월 22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 청원위파가 한번에 3,768명이라는 많은 일가들의 수단을 신청한 여세를 몰아 편찬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단신청을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목)까지 수단을 신청하는 일가들에 대해서는 중추절(仲秋節)인 추석(9월 30일·일) 때에 맞춰

「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입력과 검색일정을 특별히 설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추석을 전후한 3일간의 연휴기간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이 젊은 자손들의 「인터넷」검색을 통해 함께 「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특별히 취해진 것이다.

종보 연말까지 매월 발행

중앙종친회는 격월로 홀수달에만 8면으로 발행해오던 종보「청주한씨보」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오는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짝수달(6·8·10·12월)에도 4면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짝수달에 4면으로 발행되는 종보는, 주로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차질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작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증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편찬일정 및 수단

▲편찬일정

- ① 수단 접수기간 : 20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입니다.
- ② 입력 및 개통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입니다.
- ③ 2013년 상반기 중 완결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종파 또는 개인의 주문을 받아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합니다.

▲수단금

- ① 수단 비용은 1인당 12,000원 (부부는 1인으로 간주)이며, 기혼자, 미혼자, 출가녀, 신규 입보자, 사망자, 내용 수정 등은 수단금을 납부해야만 족보에 등재됩니다.
- ② 1건 기준 50명 이상 단체로 접수할 경우 30%를 할인하여 문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 ③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입보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안하여 3분의 2를 할인하여 4,000원으로 한다.

▲사진 등재비

사진은 1매당 12,000원 입니다. 사진은 개인사진, 가족사진, 표창장 사진, 묘소, 묘비, 묘소약도 사진 등을 등재할 수 있으며, 수단신청시 함께 하면 됩니다.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 예약

「7교청주한씨대동족보」전질 또는 파보를 보책으로 원하는 일가는 수단 신청시 1질당 5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책가격은 주문 수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대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손에게 뿌리 찾아주고 싶다” 해외 거주 일가들 수단신청 잇달아

지난 6월부터 재개된 「제7교한글 인터넷대동족보」 제2단계 편찬사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일가들의 수단신청과 문의가 잇달고 있어 11월 말까지의 수단신청 마감을 앞두고 점차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독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景斗(검교참판공파)일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모 貴分(86)일가를 통해 가족 전원(27명)의 수단을 신청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東燮일가는 가족 17명을, 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永晙(한남공파)일가는 가족 11명의 수단을 신청했다.

조부 洪錫일가, 부친 泰淵일가의 이주를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相權(32세손·안양공파)일가는 “비록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자손들에게 뿌리를 찾아주고 계승시켜 명문의 후손으로 긍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가족 전원의 수단을 신청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紅花(여·32세손·예빈윤공파)는 庚晨일가의 7남매 중 여섯째로 친정가족 전부의 수단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수단신청 요령과 자신들이 어느 종파 인지를 찾아달라는 해외 거주 일가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알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2.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한 씨중앙종친회

편찬팀, 폭염속 순방 계속



순회중인 편찬팀 임원들과 울산시 종친회 임원들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팀의 陽命고문, 駿錫편찬소위원장, 백준중앙회부회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成龍, 燮燮부회장 등 임원들은 벌써 30도를 넘는 폭염속에 ▲7월 7일 문간공문중(회장 駿錫) ▲7월 11일 도장동공문중(회장직무대행 明夫, 전회장 三錫) ▲7월 13일 서울청장년회(회장 三郎) ▲7월 17일 삼재관리위원회(회장 東錫) ▲7월 18일 무농회(회장 규동) ▲7월 20일 월포공문중(회장 유환) ▲7월 30일 청운회(회장 基虎) ▲7월 30일 서울 동작구종친회(회장 우인)를 순방한데 이어 8월 7일 교위공문중(회장 명섭) ▲8월 11일 울산시종친

회(회장 成國)를 순방, 홍보와 수단신청 독려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8월 7일의 교위공문중 순방 때는 교위공 단위장학회 明洙회장을 비롯 장수(전 강원도교육감), 명섭(몽계공교위공문중 회장), 청장년회, 검참공문중, 예빈윤공문중 등에서 35명의 임원과 일가들이 참석했으며, 울산시종친회 순방 때는 종친회와 청장년회 단합대회와 함께 부녀회 창립축하회를 겸해 成國회장을 비롯 만우 전회장(변호사), 종관 사무총장 등 70여명의 많은 일가들이 참석, 편찬사업 지원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장학기금납부 내역 (5~6월) 단위 : 천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967	이양몽중증	30,022	30,022
1755	광천공관위장학회후태	19,500	50,580
1	중앙종친회(수입) 전액 전입	6,267	309,651
1816	삼령(서울 관악구)	1,200	5,000
25	영교전북 전주시	1,000	12,600
1462	울산시종친회	1,000	1,000
1790	광전경기 여주군	1,000	2,500
25	영교전북 전주시	200	12,800
540	성수(서울 광진구)	100	1,300
1181	귀성전북 전주시	100	1,630
1606	기연전북 전주시	100	2,150
1698	석두(서울 동대문구)	100	650
799	조정서울 마포구	30	110
931	문희(서울 동대문구)	30	8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	480
1968	명규경기 고양시	20	20
1123	윤석충남 예산군	10	20
1730	선영강원 강릉시	10	250
1763	봉호(부산 동래구)	10	80
1950	창업	1	10
1950	창업	1	11
1951	기택	1	14
1951	기택	1	15
1955	배우자	1	9
1955	배우자	1	10
1956	기원	1	9
1956	기원	1	10
합계			60,727

개인정보비 (5~6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근수 부회장(감사공파회장)	100
석두(서울 동대문구)	100
우명(인천 남구)	100
상욱 운영위원(고창군 회장)	50
순교(경기 안양시)	50
영택(서울 중랑구)	50
정하(서울 서대문구)	50
준석(충북 청주시)	50
창호(대구 서구)	50
태교(충남 서산시)	50
길수(서울 영등포구)	40
덕수(서울 중랑구)	40
현석(서울 강북구)	40
광호(서울 강서구)	30
광희(경기 의정부시)	30
길진 이새광주 동구	30
만정(경기 고양시)	30
명교(경기 용인시)	30
상모(전남 구례군)	30
상진(서울 강남구)	30
상호 이새(충남 부여군)	30
성수(서울 광진구)	30
재춘(경북 문경시)	30
종근(경북 상주시)	30
춘부(서울 중구)	30
귀동(경기 부천시)	20
규천(경기 평택시)	20
균선(대전 서구)	20
기석(경기 남양주시)	20
남희(충남 청양군)	20
능수(전북 남원시)	20
대화(경북 경주시)	20
동석(서울 용산구)	20
동하(경기 양평군)	20
명규(경기 고양시)	20
명희(광주 서구)	20
문희(서울 동대문구)	20
복원(서울 영등포구)	20
봉호(부산 동래구)	20
상근(서울 강동구)	20
상춘(경기 수원시)	20
상태(서울 도봉구)	20
상희(서울 동작구)	20
석홍(서울 은평구)	20
순례(서울 관악구)	20
애심(서울 서초구)	20
양석(충남 당진군)	20
양현(광주 서구)	20
영달(경북 경산시)	20
영수(광주 서구)	20
인교(경북 고령군)	20
임대근	20
장환(광주 서구)	20
재근(전북 전주시)	20
재술(전북 김제시)	20
정기(인천 남동구)	20
조정(서울 마포구)	20
중수 이새(부산 수영구)	20
중석 이새(서울 광진구)	20
지현(서울 성북구)	20
학수 이새(서울 중랑구)	20
홍섭(경기 양주시)	20
황규(충남 홍성군)	20
희수(경기 고양시)	20
공필(서울 동작구)	10
명석(서울 금천구)	10
윤석(충남 예산군)	10
은현(서울 강서구)	10
합계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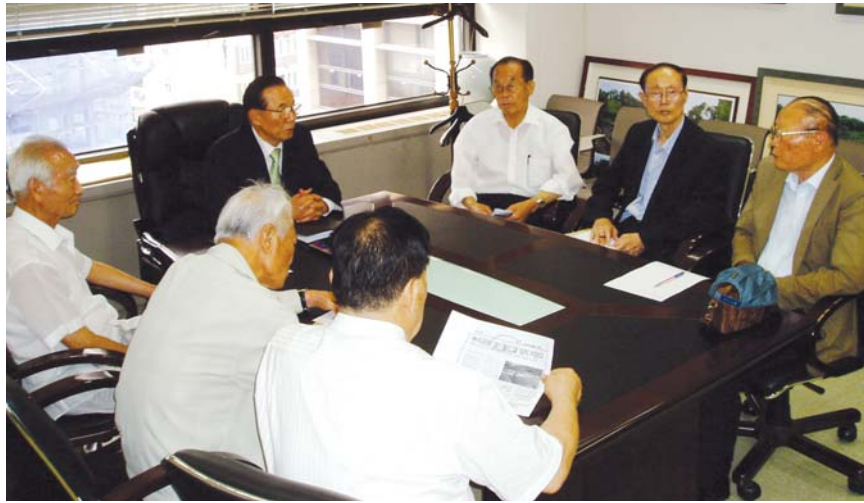
운영회비 (5~6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효동 고문(대전 중구)	500
상홍 자문위원(경기 용인시)	500
추태 부회장(정혜공파회장)	500
희섭 부회장(대구경북회장)	500
동협 부회장(삼등공파회장)	500
창섭 부회장(인천시회장)	500
태섭 부회장(부산시회장)	250
상욱 운영위원(고창군회장)	200
병수 운영위원(예산군회장)	200
세영 이새(서울 은평구)	200
경열 이새(경기 여주군)	100
백웅 이새(서울 영등포구)	100
상선 이새(서울 동대문구)	100
중석 이새(서울 광진구)	100
경석 이새(서울 강남구)	100
학수 이새(서울 중랑구)	100
합계	4,450

단체정보비 (5~6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인천시종친회	500
대구경북종친회(희섭)	300
송탄시종친회	100
청주한씨친목회(청주)	100
평성읍종친회(택동)	100
진해시종친회	50
합계	1,150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 홍보 다각적으로 강화” “순회반도 복수로 운영할 계획”



청원우파 相英회장(오른쪽)이 편찬팀회의에서 3,768명의 수단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편찬팀은 지난 2개월간 각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를 순방,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수단신청을 독려해온 결과 “순방한 대부분의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에서는 수단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편찬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청원우파 相英회장과 총성공파 鮮敎회장도 “지방 여러곳을 다녀본 결과 많은 일가들이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홍보의 부족을 지적했다.

보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0년 8월에 마감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1단계 편찬사업에서 자체적인 CD파보 제작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서원군파문중에 대해 지난 7월 19일 개최된 편찬팀회의에서 밝힌 대로 1인당 수단금 12,000원의 3분의 1로 할인된 4,000원으로 수단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서원군파에서 한자(漢字)만으로 제작된 CD파보를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범례를 따라 한자와 한글로 번역해서 가져오면 그대로 수록해주기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편찬팀, 순방 결과 평가회의 甲洙회장, “홍보 재검토 필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편찬팀이 7월부터 8월에

걸쳐 홍보와 수단신청 독려를 위해 각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를 순방한 결과에 대한 평가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甲洙회장은 순회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청취한 후 “홍보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 현재 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회팀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하여 홍보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지적에 따라 편찬팀은 우선 1개팀으로 순회하던 홍보방법을 개편, 2개 이상의 홍보팀을 편성하여 각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를 통해 보다 많은 일가들을 접촉하면서 홍보와 수단독려를 하는 한편 종보를 통한 홍

보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서원군파 敬洙회장은 지난 6월 14일 서원군파내 중진들의 친목모임인 서정회(西情會·회장 吉洙) 총회에서 “이번 기회에 아주 깨끗이 정리된 진짜 대동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제하고 “우리 서원군도 이번에 적극 참여하여 제대로 된 족보 편찬에 협조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온 甲洙회장에게 큰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하면서 만장의 박수를 유도한 바 있다.

울산시종친회 부녀회 결성 청장년회 등과 단합대회도



울산시 종친회 부녀회 결성 및 단합대회

「인터넷족보」편찬팀도 참석, 홍보

울산광역시종친회(회장 成國)는 지난 7월 26일 20여명의 여성일가들로 부녀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김금렬, 감사에 박영숙, 총무에 김정미 회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금렬회장은 인사말에서 “개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각종 종친회 행사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종친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늦게나마 부녀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1일에는 울산근교의 명소인 선바위(입안) 지역에서 종친회, 청장년회, 부녀회 회원 등 70여명의 종친회 임원, 청장년회와 부녀회의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갖고 일가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회에서 駿錫편찬소위원장, 중앙회 백준부회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成龍, 星燮부회장 등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이 참석, 홍보와 수단신청을 독려했으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종친회 사칭 14억원 가로챈 사기꾼 구속 ‘대동보감’ 책자 만들어 8천명에게 팔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27일 여러 종친회를 사칭하여 대동보감이라는 책을 각 종친회의 유력인사들에게 팔아 14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 주범 송모(52)를 구속하고 판매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보학자료원이라는 단체를 차려놓고 인터넷에서 찾은 각 문중의 중요사건이나 출세한 인물 등을 수록하여 대동보감이라는 책자를 제작, 대학동문록, 기업인명부 등에 실린 전화번호

호로 8,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문중발전기금 명목으로 14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43개 종친회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통해 “그 동안 문중 일에 소홀했으니 이번 기회에 발전기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새로 나온 대동보감을 구입해달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의 금전을 받아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중앙종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회 방문 일가들

- 相根 서울 금천구
- 基仁 경남 창원시
- 在賢 서울 상일동
- 輪珠 서울 송파구
- 민희 경기 수원시
- 東錫 경기 평택시
- 백빈 경기 광주시
- 成龍 경기 광주시
- 효섭 부산 연제구
- 上오 공안공파
- 심혜진 경기 고양시
- 元규 경기 용인시
- 공다는 경기 성남
- 辰燮 인천 부평구
- 圭동 인천 부평구
- 基虎 인천 남동구
- 茂山 서울 관악구
- 貴東 경기 부천시
- 曾鎬 서울 영등포
- 相哲 강원 춘천시
- 成益 경기 수원시
- 大熙 경기 고양시
- 建錫 경남 창원시
- 太燮 부산시 회장
- 永鶴 경기 여주군
- 永虎 서울 강동구
- 鼎錫 서울 양천구
- 桴道 경기 구리시
- 殷洙 경기 김포시
- 鍾郁 경기 김포시
- 有燮 경기 김포시
- 天洙 경기 김포시
- 翰河 경기 김포시
- 晚熙 서울 금천구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 재개

-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를 마감
-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 말까지 입력, 개통
- ③ 완결 후 신청받아 전질 및 파보책 발간계획

-명문족보에 올라야 명문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족보는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한글인터넷족보를 원합니다-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가 내년초 완결됩니다-

- 지난 2010년 8월 제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미완(未完)상태로 개통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목표로 편찬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제1단계 편찬사업 때 누락된 일가들의 수단 접수를 2012년 11월 말까지 마감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개통하여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013년 상반기 중에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2012년 11월말 마감 때까지 수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서 누락되며, 2013년에 들어 희망하는 일가들에 한해 발간 예정인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譜冊)에도 등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일가들께서는 빠짐없이 조속히 수단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단을 신청한 일가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입력을 끝내고 바로 개통됨으로 일제히 검색 및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단비는 1인당 12,000원 입니다.
- 50인 이상 신청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30% 감액됩니다.
-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입보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안하여 3분의 2를 할인하여 4,000원으로 한다.
- 종파회장은 유사(有司)가 되며, 입보(入譜), 교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2,000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은 10cmX15cm=4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은 중앙중친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중앙중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중앙중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 (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중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중앙중친회로 전화 (02-720-6370) 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
 -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 2월 15일 생, 1980년 2월 15일 졸.
 -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을좌(乙坐) 합편 또는 쌍분(雙墳)
 -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중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촌수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 ①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 ②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 비해 단점이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 ③인터넷족보는 국내외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있어야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 ④인터넷족보는 CD가 없어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 ⑤인터넷족보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鑄成)된 후에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 ⑥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아 족보에 등재할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⑦인터넷족보는 제작기간이 짧다. 수단 접수 후 짧게는 몇일 이내에 자기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중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 있다.
- ⑧인터넷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없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⑨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프린터로 출력하여 새로운 보책(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불가능하다.
- ⑩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하여 판매하면 일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단비를 내는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 ⑪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향후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CD를 이용하는 CD족보도 사라지고 인터넷족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켓이 완전히 없어졌고, 3.5" 디스켓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